

# 세월호 사고 뉴스 프레임의 비대칭적 편향성\*

## 언론의 차별적 관점과 해석 방식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배재영**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프레임 개념과 편향성 개념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재난 사고 뉴스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해석했다. 국내 언론이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특수한 재난 사고의 문제 정의, 원인 해석, 도덕적 평가, 그리고 사후 처방을 제시하는 과정에 어떤 프레임을 더 편향되게 배치했는지를 이론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또한 프레임의 편향성이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았다. 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 진단 프레임에서는 전체적으로 파편화>개인화>권위무질서>극화의 순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조선일보>는 파편화 편향성이, 한겨레는 권위무질서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컸다. 둘째, 사고 평가에서는 책임 프레임>도덕적 프레임>문제 해결 프레임>사고 원인 프레임의 순으로 편향되어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책임 프레임, 도덕적 프레임 편향적으로 사고를 평가했다. <한겨레>는 책임 프레임, 문제 해결 프레임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셋째, 책임 소재 프레임에서는 정부>개인>조직의 순으로 편향되어 제시됐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개인의 책임 편향성을 드러낸 반면에,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더 강조하면서 조직에 대한 책임 편향성도 보였다. 넷째, 문제 해결 프레임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 편향성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일화적 프레임으로, <한겨레>는 주제적 프레임으로 더 편향화하는 차이를 보였다. 세월호 사고의 평가와 해석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편향성과 함께 이념적 차이에 따른 언론 간의 편향성 차이를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토론했다.

**KEYWORDS** 세월호 사고, 사고 진단, 사고 평가, 책임 소재, 문제 해결, 프레임, 편향성, 이념성

---

\* 이 논문은 동서대학교 2015년도 교내 특별연구비로 수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를 위해 자료수집과 코딩작업에 도움을 준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졸업생 김윤지양에게 감사를 전한다.

\*\* wslee@gdsu.dongseo.ac.kr 주저자

\*\*\* haniprsn@gmail.com 교신저자

## 1. 문제제기

재난 사고 기사는 다른 이슈와는 달리 진단, 평가, 책임 주체, 그리고 해결의 이야기 구조를 갖는다. 기자들은 재난 사고를 보도할 때 일반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도덕적 평가를 내리며 처방이나 예방책을 제시한다. 언론은 이 과정에 재난 사고의 전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 부여를 위해 인식된 현실의 몇 개 측면을 선택해 보여 준다(Entman, 2007). 언론을 통해 우리가 보고 듣는 사고 뉴스도 결국은 기자의 해석과 선호 체계를 담은 하나의 선택된 프레임이다. 뉴스 프레임িং은 어떤 토픽에 대해 특정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를 기사 맥락 속에서 보다 현저(salience)하게 만드는 과정이다(de Vreese, 2002; Entman, 1993). 뉴스는 사안의 특정 요소나 측면을 선택, 강조하고, 상술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적이다(Fowler, 2007). 모든 뉴스는 항상 어떤 특별한 앵글을 갖고 보도된다는 점에서 내용의 변형, 차별화, 그리고 편향화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없다. 엔트만(Entman, 2007)도 한 측면을 다른 측면에 비해 선호하고, 강조하는 뉴스 프레임 자체가 편향성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프레임 자체를 두고 편향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뉴스 자체가 이미 편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재난 뉴스 자체의 편향성을 살펴보는 대신에 재난 사고 이슈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비대칭적 분포에 주목했다. 언론이 다루는 대부분 사회적 이슈는 단일 프레임이 아닌 다양한 프레임이 중첩되어 설명된다. 이슈를 설명하는 과정에 다수의 프레임 가운데 특정 프레임 쪽으로 과도하게 정도(slant)되어 있을 때 편향적이라고 가정한다(de Vreese, 2012).

그러나 지금까지 프레임과 편향성 개념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사회적 이슈를 탐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de Vreese, 2012). 뉴스의 정치적 관점이 특정 집단에 유리하다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Gentzkow & Shapiro, 2006), 뉴스 언어의 차별적 사용을 통한 사회 가치의 편향성(Fowler, 2007) 연구처럼 주로 프레임과 편향성 개념은 서로 분리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정치적 이념성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재난 사고를 대상으로 프레임 편향성이 뉴스에 어떻게 구현되어 나타났는지 살펴본 연구는 없다. 이 연구는 2014년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를 대상으로 프레임의 비대칭적인 편향성 수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내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가운데 두드러지게 편향된 프레임이 무엇인지 관찰해 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개별적 프레임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의 비대칭적 분포를 통해 특정 프레임의 편향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프레임과 편향성 개념을 접목해 재

난 사고 현실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프레임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다. 셋째는 이념성이 다른 언론 매체가 정치적 이념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재난 사고를 보도함에 있어 프레임 편향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고 뉴스의 프레임 편향성 연구는 무엇보다 보도 규범 체계의 문제점을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사고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특히 이 연구는 국내 신문 가운데 보수 신문을 대표하는 <조선일보>와 진보 신문을 대표하는 <한겨레>가 세월호 뉴스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프레임 편향성 관점에서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념이 서로 다른 매체가 동일한 재난 사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는지를 비교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랜스 베넷(Lance Bennett, 2012)의 뉴스 정보 편향성,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의 사고 평가 편향성, 치이와 맥콕스(Chyi & McCombs, 2004)의 공간적 차원에서의 책임 소재 편향성, 그리고 아이엔가(Iyengar, 1991)의 문제 해결 편향성 개념을 분석틀로 차용했다. 이들 프레임 개념은 재난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사고의 개별적 평가, 책임의 소재,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의미 체계를 일련의 사고(事故) 진행 과정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 주는 데 적절하다. 언론이 재난 사고를 보도하면서 어떤 편향된 시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시각이 사고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의 관점과 해석 방식을 비교해 봄으로써 정치사회적 이념성의 차이가 사고 뉴스의 프레임 편향성 차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이론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분석 결과에 나타난 뉴스의 편향성을 통해 언론, 특히 신문의 재난 사고 보도 규범에 대한 성찰과 함께 대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논의

### 1) 사고 보도의 프레임, 그리고 편향성

사고 뉴스는 본질적으로 원인, 과정 결과의 과정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사고 뉴스는 사고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사고 현실을 평가하며, 향후 어떤 대책과 처방이 가능한지 제시하는 내용을 필수적 요소로 담는다. 사고 뉴스 프레임은 문제에 대한 진단, 평가, 그리고 처방에 대해 특정한 관점을 현저하게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이런 점에서 엔트만(Entman, 1993)이 제안한 프레임 개념은 사고 뉴스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분석틀로

평가된다. 엔트만은 어떤 사회적 이슈를 설명할 때 문제 정의, 원인 해석, 도덕적 평가, 처방 제시 등을 통해 현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엔트만의 이런 프레임 개념은 사고 뉴스를 설명할 때 유용한데, 사고의 진단과 평가 그리고 처방이라는 3단계 과정 속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방식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트만의 이런 프레임 요소 개념은 정합적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특정 사회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베넷(Bennett, 2007)과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 그리고 아이엔가(Iyengar, 1991)의 프레임 개념은 구체적이어서 문제의 원인, 과정, 결과의 인과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사고 현실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

베넷(Bennett, 2007)은 어떤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위한 방법으로 개인화(personalization), 파편화(fragmentation), 극화(dramatization), 권위 무질서(authority-disorder) 등 네 개의 프레임 개념을 제시했다. 개인화 뉴스 프레임은 사고의 원인과 영향을 심층적으로 짚어내기보다는 영웅과 희생자에게는 동정을 보내고, 악당과 범죄자는 단죄하는 인간흥미 중심으로 접근하는 개념이다. 파편화 뉴스 프레임은 사고의 연관성을 유기적으로 접근하는 대신에 관련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다루는 탈맥락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보도 방식의 개념이다. 뉴스의 극화 프레임은 사고와 관련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사진, 그래픽, 비디오 등 이미지를 과잉화해 재현하는 개념이다. 권위 무질서 프레임은 사고 책임의 소재를 정치인, 정부 관리, 대통령 등에 귀인함으로써 사고의 해결 주체를 권력자의 문제로 돌리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는 사회적 이슈를 사고 원인, 갈등적 요인, 도덕적 요인, 경제적 손실 요인, 책임 요인, 문제 해결 요인 등 여섯 가지 프레임을 통해 설명한다. 이 프레임 개념 마찬가지로 사고가 왜 발생했으며, 이해 주체 간의 갈등적 요소는 무엇이며, 행위 주체자들의 도덕적 평가는 어떻게 내리며,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되며, 책임은 누구에게 귀인되며, 그리고 문제 해결 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여 주는 해석틀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고 이슈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유용한 장치에 해당된다. 치이와 맥콤스(Chyi & McCombs, 2004)의 시공간적 프레임 개념은 사고의 책임 소재를 설명하는 데 편리하다. 이들은 사고의 책임을 개인, 조직, 사회, 국가(혹은 정부), 국제사회 등 다섯 가지 주체에 귀인하는 프레임을 제안했다. 개인은 사고 유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조직은 사고 유발이 특정집단이나 기업에 있을 때 해당된다. 사회는 사고 발생 원인을 더 거시적으로 확장해 집단 공동체의 문제로 간주하는 경우다. 국가는 정부의 제도나 법률적 한계에 따라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제사회는 국제사회가 단초를 제공한 환경, 범죄, 제도 등의 문제일 경우 해당된다.

아이엔가(Iyengar, 1991)는 특정 이슈에 대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프레임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문제 해결의 주체를 개인에 맞추는 일화적 프레임과 사회나 정부에 책임을 지우는 주제적 프레임으로 나눠 사고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과 주제에 대한 설명틀을 제시했다. 일화적 프레임은 사회문제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수용자의 감정을 유도하는 반면에, 주제적 프레임은 사회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실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제공한다(오택섭·강현두·최정호·안재현, 2015). 우리가 직면하는 사회문제의 책임 해결 주체는 크게 보면 개인에 귀인하는 일화적 프레임과 사회나 정부에 귀인하는 주제적 프레임으로 나눠 설명될 수 있다.

드 브리세(de Vreese, 2012)의 지적대로 프레임을 제시하기 위해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할 필요는 없다. 현실적으로 모든 요소를 다 뉴스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뉴스 기사는 특정의 단어, 문장, 이미지, 정보원을 포함하거나 배제한다는 점에서 편향적이다. 뉴스 보도 맥락에서 볼 때, 편향성은 정확성, 균형성, 공정성의 반대 개념이다(Fico & Soffin, 1995; Streckfuss, 1990). 기자들은 뉴스 제작 과정에 특정 요소나 가치를 명시화하거나 또는 사실이나 판단을 주제적으로 더 강화하는 관행을 따른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편향적인 뉴스를 생산해 낼 개연성이 높다(Entman, 1993). 뉴스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코 중립적(neutral)이지 않다. 파울러(Fowler, 2007)의 지적대로 뉴스는 기호학적 코드인 언어를 통해 세상을 재현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균형성과는 거리가 멀다(pp. 2-4). 언론이 구성하는 프레임은 특정 정보를 더 주목하게 하거나 의미화하며 기억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구적이고 가치 개입적이다(Fowler, 2007). 기자는 구성적인 중재자(constructive)로서 특정한 사실을 보도하기 때문에 가치 배제적(free-value)일 수 없다. 달리 말하면 뉴스는 사회적 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의 산물로 그 자체가 이미 편향성을 전제로 한다(Fowler, 2007). 물론 기자들은 다른 견해를 보인다. 기자들은 사실을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며, 경쟁하는 프레임을 균형적으로 다루며, 특정한 방향으로 경도되지 않게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말한다(Entman, 2012; Fowler, 2007). 많은 저널리즘 연구자들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저널리즘 규칙이나 규범이 언론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Gans, 1979; Schudson, 1978; Tuchman, 1978).

기자들은 보도 과정에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고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주관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작업 환경은 피할 수 없다. 김왕근(2014)의 지적대로 사고의 성격조차 기자가 특정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뉴스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편향된 지각을 통해 구성된 주관적 현실에 가깝다. 이에 대해 엔트만(Entman, 2007)은 뉴스의 편향성을 기자가

의도적으로 현실을 곡해하는 ‘왜곡 편향성’, 갈등 이슈에 대해 양쪽을 균형적으로 다루는 대신 한쪽에 치우친 ‘내용 편향성’, 그리고 편향된 내용을 생산하는 기자의 동기와 사고방식인 ‘의사결정 편향성’으로 나뉘 설명한다. 엔트만의 이런 논의는 사회 현실을 다루는 뉴스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특정한 관점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 베넷(Bennett, 2007)은 “오늘날 뉴스 스타일의 가장 큰 오류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뉴스의 편향성 문제”라고 말한다(p. 45).

미국의 연구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5대 재난 사고에 대한 신문 보도 내용을 분석한 플라우먼(Ploughman, 1995)은 미국 신문들이 재난 사고 내용을 극화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편향되게 보도함으로써 사고 발생 배경에 대해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이들 재해를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로 의미를 구성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 2) 언론의 이념성과 사고 보도 편향성

어떤 사건에 대한 언론의 시각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기자들은 개인의 가치나 철학은 물론, 언론 조직의 문화와 관행, 정치경제 권력 등 외부 압력,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이념적 가치에 따라 같은 문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한다(Bennett, 2007; Shoemaker & Rhesse, 1996). 이 가운데 언론의 이념성은 정치,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해 관점을 제시하고, 해석을 하는 데 편향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Gentzkow & Shapiro, 2013; Mayer, 2008). 이데올로기는 근본적으로 기자들이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식과 습관을 반영하는 단서가 된다(Shoemaker & Reese, 1996, p. 11). 쉽게 말하면 보수 성향의 언론사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진보 성향의 언론사는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도하는 식이다(박재영·노성중, 2009). 따라서 뉴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른 신념, 인식, 가치가 반영되며, 이 과정에 변형과 차별적 재현 방식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Fowler, 2007). 언론에 나타난 사실은 진짜 세계가 아니며, 그 세계는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또는 일정한 이념적 판단을 거쳐 만들어진 세계이다. 언론이 만들어 낸 뉴스는 그 자체가 이미 어떤 대상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을 내포한다.

저널리즘의 직업적 이념성은 뉴스의 판단을 구성하는 문화적 지식이자(Schudson, 2001), 기자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집단적 지식이기도 하다(Zelizer, 2004). 보도의 편향성은 기자가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 해석공동체로서 지향하는 이념적인 사고 방향으로 정의된다는 이준웅(2009)이나 에버랜드와 샤(Eveland & Sha, 2003)의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저널리즘 관점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는 뉴스 아이디어와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는

작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집단의 신념체계인 셈이다(Deuze, 2005).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뉴스 편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저널리즘 규범 연구에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Shoemaker & Reese, 1996). 허버트 간스(Gans, 1980)는 일찍이 보수와 진보 기자들이 중시하는 편향된 가치를 조사한 결과, 보수 언론들은 애국주의, 이타적 민주주의, 책임자본, 전원주의, 개인주의, 온건주의, 사회적 질서, 그리고 국가적 리더십 등을 주요 보도 가치로 삼았다. 이에 반해 진보 언론들은 책임 있는 자본주의, 시장자유주의, 빈부격차 해소, 개방성 지지 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 편향을 드러냈다(Mayer, 2008). 보수와 진보 언론의 뉴스 연구는 정치사회적으로 이념지향적인 선거, 정치, 마약, 동성애, 복지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Gentzkow & Shapiro, 2013).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국내의 많은 신문 뉴스 연구들은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의 보도 프레임 차이에 주목해 왔다(김관호, 2014; 김정아·채백, 2008; 박진우·이형민·한동섭, 2014; 양정혜, 2008; 이수진·윤순진, 2013; 임봉수·이완수·이민규, 2014; 임양준, 2013). 보수 신문은 전통적으로 친정부적이고, 친기업적인 관점에서 뉴스 프레임을 강조하는 반면에 진보 신문은 반정부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프레임을 보여 준다(양정혜, 2008; 임봉수 등, 2014). 국내의 보수와 진보 신문 보도프레임 비교 연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선거, 정치, 기업, 환경, 개발, 북한 등 정치경제나 사회적 이슈 등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물적 피해를 안기는 재난 사고 보도에서 신문의 이념적 편향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재난 사고는 정치, 경제, 노동, 환경, 또는 북한문제와는 달리 탈이념적 이슈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언론의 정파성이나 이념성의 차이에 따라 재난 사고에 대한 시각의 편향성에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적다.

듀제(Deuze, 2005)는 모든 매체의 뉴스 유형, 장르, 형태에 이념적 편향성이 반영된다고 말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사고 이슈도 원인, 과정, 해결 방식을 기술하는 과정에 이데올로기적 관점과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정혜(2008)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를 통해 신문사의 이념에 따른 프레임 차이를 검토한 결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프레임 비중이 낮았으며,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 등 대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전무했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피해 주민과 환경, 그리고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주목하는 차별적인 프레임을 나타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한겨레>와 달리 사건의 전개 상황과 배상 절차에 주목하면서 환경문제와 지역 경제 문제를 주변화하는 프레임 구성 체계를 보였다.

언론의 이념성 차이가 세월호 사고 진단 과정에 관점의 차이로 나타났다는 구체적인 연구도 있다. 이완수와 배재영(2014)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 간의 보도 비교 연구에서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는 사고 원인을 개인 중심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반면에, 진보 신문인 〈한겨레〉는 상황 중심적 관점으로 기술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 사고 책임도 〈조선일보〉는 개인에 귀인하는 방식을 선택한 반면에,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개인과 사회를 상호작용적으로 연결해 설명한다. 김왕근(2014)은 세월호 사고 보도와 관련해 진보 언론이 기사의 불완전성을 무릅쓰고 ‘문제제기’에 좀 더 치중한 반면에, 보수 언론들은 ‘문제의 해결’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진단한다(p. 72). 진보 언론이 문제 원인 프레임을 강조했다면, 보수 언론은 문제 해결 프레임을 강조했다라는 뜻이다. 김왕근(2014)은 나아가 〈조선일보〉를 예로 들면서 세월호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기 보다는 사고 원인을 개인의 안전불감증으로 서둘러 귀인하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김사승(2009)은 이에 대해 진보 언론은 뉴스 생산 과정에 다양성 기제가 강하고, 보수 언론은 현실성 기제가 강하다고 말한다. 김사승은 특히 보수든 진보든 뉴스 조직이 특정 방향으로 쏠리는 것은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다양성 기제와 현실적으로 불가항력적인 현실성 기제가 내부적으로 적절히 긴장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 3. 연구문제

아래의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여섯 개의 주요 프레임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동원했다. 첫째는 베넷(Bennett, 2012)의 정보 편향성 프레임 개념으로 세월호 사고의 전체적인 뉴스 지형을 살펴보고, 사고 진단을 하는 데 적용해 보고자 한다. 둘째는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가 개발한 연역적 프레임으로 사고 평가 편향성을 살펴보는 데 적용해 보고자 한다. 셋째는 치이와 맥콤스(Chyi & McCombs, 2004)의 공간적 차원의 책임 소재 프레임으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적용해 보고자 한다. 넷째는 아이엔가(Iyengar, 1991)의 문제 해결 프레임으로 세월호 사고의 해결 주체를 누구로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적용해 보고자 한다. 즉, 사고 진단, 사고 평가, 책임 소재, 문제 해결 주제에 어떤 프레임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프레임의 차별적 분포가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간에 어떻게 대조적으로 나타났는지 실증적으로 관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1: 한국 언론이 구성한 세월호 사고 진단 프레임 편향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세월호 사고 진단 프레임 편향성은 신문사의 이념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한국 언론이 구성한 세월호 사고 평가 프레임 편향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세월호 사고 평가 프레임 편향성은 신문사의 이념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1: 한국 언론이 구성한 세월호 사고 책임 소재 프레임 편향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2: 세월호 사고 책임 소재 프레임 편향성은 신문사의 이념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1: 한국 언론이 구성한 세월호 사고 문제 해결 프레임 편향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2: 세월호 사고 문제 해결 프레임 편향성은 신문사의 이념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4. 연구방법

### 1)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 기사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기간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5월 20일까지 34일간이며, 발행된 전국판 종이신문을 분석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보도 기사 가운데 사고의 원인과 책임, 구조, 문제 해결 등과 관련된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세월호 집회, 실종자 가족들의 구조 요청 사항 및 내용, 실종자 가족들이 모인 체육관 등 팽목항 르포, 유가족 위로 캠페인, 유가족 관련 악성 댓글 및 SNS, 임시 분향소와 장례식, 유가족 성금 모금, 실종자 가족 돌보는 자원봉사자, 생존 학생들 등교와 같은 기사들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는 사고의 발생 원인과 책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 편향성을 살펴보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분석대상 보도 기사는 4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선일보> 284건, <한겨레> 293건으로 모두 577건이었다. 분석에서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하는 사설, 칼럼 등 의견 기사는 제외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20.0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 2) 분석 유목 및 정의

아래 제시된 분석 유목 가운데 사고 진단, 사고 평가 항목은 복수 코딩으로 처리했으며, 기사별로 해당될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해 코딩했다. 사고 진단과 사고 평가 항목을 복수 코딩한 것은 기사 내용이 유목에 따라 복합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지배적 프레임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나머지 책임 소재, 문제 해결 프레임은 헤드라인, 리드 등을 중심으로 코딩하되, 명확히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문 전체 기사를 읽어보고 문맥상 지배적으로 강조되는 프레임을 중심으로 코딩해 분류했다.

### (1) 사고 진단 프레임

사고 진단 프레임은 특정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위한 방법으로 베넷(Bennett, 2007)이 제안한 개인화, 파편화, 극화, 권위 무질서 등 네 개의 프레임 개념을 이용해 국내 언론사가 세월호 사고를 어떻게 진단했는지를 살펴보았다.

#### ① 개인화

사고 원인과 과정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구조적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개인의 시련, 비극, 극복과 같은 인간적 흥미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다. 반면에 진지하고, 도덕적이고, 의미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경우다. 예를 들어 미디어가 영웅과 희생자, 증오의 대상인 악당과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는 등 인간적 흥미 위주의 뉴스가 이에 해당된다.

예시: 1990년도 한강 세모유람선 침몰 사고로 떠들썩 오대양사건 관련 조사받아... 일가 재산 2400억대(<한겨레>, 2014. 4. 23.), 아이들이 친구 구할 때, 선장은 첫 보트로 '1號 탈출' (<조선일보>, 2014. 4. 17)

#### ② 파편화

뉴스 내용이 종합적이고, 상호 관계적이고, 맥락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특정 사안이나 측면만을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강조하는 경우다. 파편화 뉴스는 문제의 원인, 역사적 배경이나 의미, 이슈간의 관련성 등은 미흡하고, 대신에 이슈를 스케치하듯이, 또 극적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단편적인 요소를 갖고 마치 전체의 문제로 과대하게 설명하는 경우다.

예시: 1990년도 한강 세모유람선 침몰 사고로 떠들썩 오대양사건 관련 조사받아... 일가 재산 2400억대(〈한겨레〉, 2014. 4. 23.), 침몰 세월號 운영한 청해진해운... 1990년대 부도난 세모해운 後身(〈조선일보〉, 2014. 4. 18)

### ③ 극화

뉴스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마치 드라마처럼 보이는 경우다. 기사가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보도하기보다는 이야기나 내러티브 방식을 과도하게 사용해 보도하는 경우다. 또한 과거나 미래의 문제보다 현재의 위기를 보다 강조하거나 복잡한 정책 정보, 정부의 기능과 활동, 중심적인 인물의 권력배경 등을 소홀히 다룬 경우를 포함했다.

예시: 無法·배짱 운항 밥 먹듯... 청해진해운에 ‘安全’은 없었다(〈조선일보〉, 2014. 1. 17.), “더 이상 당신들을 믿을 수 없어요”(〈한겨레〉, 2014. 4. 21.)

### ④ 권위 무질서

정부나 정치적 리더십이 갈등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을 통제하고 정상화시키지 못한 채 문제 해결 실패, 무질서, 대혼란을 지속적으로 겪는 것으로 보도하는 경우다. 이 과정에 사고 책임의 소재를 정치인, 정부 관리, 대통령 등에 귀인함으로써 사고의 해결 주체를 권력자의 문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해수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등에게 불안정한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묻는 기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시: 국민이不信의 낙인찍은 ‘허둥지둥 정부’(〈조선일보〉, 2014. 4. 19.), 안이한 현장대처·지위체계 혼선... ‘어이없는 정부’(〈한겨레〉, 2014. 4. 18)

## (2) 사고 평가 프레임

사고 평가 프레임은 세메트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가 제안한 것으로 사고 원인, 갈등적 요인, 도덕적 요인, 경제적 손실 요인, 책임 요인, 문제 해결 요인 등 여섯 가지 프레임을 이용해 세월호 사고가 어떻게 해석되고 기술되었는지 살펴보았다.

① 사고 원인 프레임: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발단, 그리고 이유를 중심으로 기술한 경우다.

- ② 갈등적 프레임: 사고와 관련해서 이해 주체 간의 대립적이고, 갈등적 요소를 중심으로 기술한 경우다.
- ③ 도덕적 평가 프레임: 사고에 관계되어 있는 이해 주체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성 등 행동 규범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기술한 경우다.
- ④ 경제적 손실 프레임: 사고가 경제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그 결과가 국가경제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를 중심으로 기술한 경우다.
- ⑤ 책임 프레임: 사고 원인이나 구조 과정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귀인과 소재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다.
- ⑥ 문제 해결 프레임: 사고 이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예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다.

**(3) 책임소재 프레임**

- ① 개인: 사고의 책임을 개인차원으로 귀인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선장과 선원, 유병언 일가, 민간 잠수사, 구난업체 언딘 인터스트리, 김종인 다이빙벨 대표 등이다.
- ② 조직: 사고의 책임을 조직이나 집단차원으로 귀인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유가족 대책위, 학교, 청해진해운, 금수원, 세모그룹, 구원파 교회 등이다.
- ③ 정부(국가): 사고의 책임을 정부나 국가차원으로 귀인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해경, 해수부, 검·경찰, 대통령 등이다.

**(4) 문제해결 프레임**

문제해결 프레임은 특정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아이엔가(Iyengar, 1991)가 제시한 일화적/주제적 프레임을 활용해 세월호 사고의 문제해결 주체를 살펴보았다.

- ① 일화적 프레임: 이슈의 해결과 책임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다. 즉, 사고의 원인과 해결의 책임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조직)에 있는 것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단, 정부 조직의 경우는 주제적 프레임으로 분류 코딩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은 유병언 일가나 청해진해운, 세모그룹 등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속한다.
- ② 주제적 프레임: 이슈를 사회 공동체, 정부(대통령 포함), 국가 등이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다. 즉,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책임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

적 맥락에 따라 거시적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

### 3) 신뢰도 분석

신뢰도 수준은 전체 분석샘플의 10%인 57건을 대상으로 코헨의 카파(Cohen kappa) 공식을 이용해 측정했다. 코딩은 언론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두 명이 담당했다. 코딩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코더들이 모여 토론을 거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뒤 교차적으로 코딩했다. 측정 항목의 신뢰도 측정은 두 단계에 걸쳐 수행했으며, 첫 번째는 사전 테스트로서 코더 2명이 30건의 샘플 기사를 코딩해 보고, 그 결과를 비교하면서 코딩 프로토콜을 명확히 재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그런 다음에 각 매체의 일련기사 중에서 10번째마다 기사를 추출하여 신뢰도 측정을 했다. 〈조선일보〉 28건, 〈한겨레〉 29건 등 57건의 샘플에 코헨 카파 공식을 적용한 결과, 각 유목의 평균 신뢰도는 사고 진단 프레임 0.74, 사고 평가 프레임 0.94, 책임 소재 프레임 0.75, 문제 해결 프레임 0.74였다.

## 5. 연구결과

〈연구문제 1〉에서는 한국 언론이 세월호 사고 보도 과정에 사고 진단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고 진단 프레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은 파편화(30.7%)였으며, 개인화(26.0%), 권위 무질서(22.0%), 극화(21.3%) 순이었다. 언론은 세월호 사고 보도를 하면서 문제의 원인이나 배경, 의미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했다기보다는 정보를 단편적으로 엮어 마치 전체의 문제로 과대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구조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개인의 시련, 고통, 비극, 극복과 같은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많았다. 이를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파편화(31.4%)를 지배적으로 사용하면서 극화(28.2%)와 개인화(24.4%)를 많이 사용했고, 권위 무질서(16.0%) 프레임의 사용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겨레〉는 파편화(29.8%)와 권위 무질서(29.3%)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극화(12.8%)의 비율이 낮았다.

〈조선일보〉는 파편화와 극화를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를 보도한 반면에 〈한겨레〉는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에 책임을 강조하는 권위 무질서 보도가 두드러졌고, 뉴스를 흥미 위주나 선정적으로 다루는 극화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선일보〉가 〈한겨레〉에 비해

표 1. 사고 진단 프레임 편향성

	조선일보	한겨레	계
개인화	24.4 (114)	28.0 (107)	26.0 (221)
파편화	31.4 (147)	29.8 (114)	30.7 (261)
극화	28.2 (132)	12.8 (49)	21.3 (181)
권위 무질서	16.0 (75)	29.3 (112)	22.0 (187)
계	55.1 (468)	44.9 (382)	100.0 (850)

복수응답: % (n)

좀 더 흥미 위주의 관점으로 뉴스 정보를 제공한 데 반해, <한겨레>는 문제의 원인과 구조 과정을 제도와 관행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파편화 프레임 편향성이 두드러진 편이지만, <조선일보>는 파편화가, <한겨레>는 권위 무질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에서는 국내 언론이 세월호 사고 보도 과정에 사고평가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보았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고평가 편향성에서 전체적으로 책임 프레임(45.2%)이 가장 많았으며, 도덕적 프레임(22.7%)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언론이 세월호 사고를 책임과 도덕성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조선일보>는 책임 프레임(40.8%)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다음으로 도덕적 프레임(29.0%), 문제 해결 프레임(17.1%), 사고 원인 프레임(8.7%) 순이었다. <한겨레> 역시 책임 프레임(50.7%)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문제 해결 프레임(21.1%), 도덕적 프레임(14.7%), 사고 원인 프레임(8.9%) 순으로 나타났다. 두 신문만 놓고 보면 <조선일보>는 책임과 도덕적 프레임 편향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평가하고 있는 데 반해, <한겨레>는 책임 문제 제기와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과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관점으로 세월호 사고를 평가했다. <표 2>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책임 프레임 편향성과 도덕적 프레임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많은 양상을 보이지만, 신문별로는 <조선일보>가 도덕적 프레임, <한겨레>는 책임 프레임과 문제해결 프레임 편향성이 대조적으로 부각되어 나타난다.

<연구문제 3>에서는 한국 언론이 세월호 사고 보도 과정에 책임 소재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보았다.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 조직, 정부(국가) 세 부류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프레임을 제시하는 보도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신문사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조선일보>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관점이 가장 많았으나, 선원과 선주인 유병연

표 2. 사고 평가 프레임 편향성

	조선일보	한겨레	계
사고원인 프레임	8,7 (49)	8,9 (40)	8,8 (89)
갈등적 프레임	3,2 (18)	4,0 (18)	3,6 (36)
도덕적 프레임	29,0 (164)	14,7 (66)	22,7 (230)
경제적 손실 프레임	1,2 (7)	0,4 (2)	0,9 (9)
책임 프레임	40,8 (231)	50,7 (227)	45,2 (458)
문제해결 프레임	17,1 (97)	21,2 (95)	18,9 (192)
계	55,8 (566)	44,2 (448)	100,0 (1,014)

복수응답: % (n)

표 3. 책임 소재 프레임 편향성

	조선일보	한겨레	계
개인	37,8 (95)	25,5 (66)	31,6 (161)
조직	11,6 (29)	18,1 (47)	14,9 (76)
정부(국가)	50,6 (127)	56,4 (146)	53,5 (273)
계	49,2 (251)	50,8 (259)	100,0 (510)

 $\chi^2=10.686$ ,  $df=2$ ,  $p=.005$ 

단위: % (n)

일가 등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편향된 관점도 38% 정도로 많은 편이었다. <한겨레>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관점이 56.4%로 <조선일보> 50.6%보다 많았으며, 사고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관점은 25.5%로 <조선일보> 37.8% 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조선일보>가 사고 책임을 개인에 귀인하는 편향성이 두드러진 반면에, <한겨레>는 개인이나 조직에 비해 정부에 책임을 더 귀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표 3> 참조)은 <한겨레>는 <조선일보>와 비교해 개인에 책임귀인을 적게 했지만, 조직(해운회사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이 귀인하는 특징을 보인 점이다. 유병언 등 개인 일가 보다 해운회사의 일반적인 부조리를 상대적으로 더 주목해 편향 보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문제 4>에서는 한국 언론이 세월호 사고 보도 과정에 문제해결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보았다. 문제해결 프레임 편향성에서는 전체적으로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 주체를 개인이나 조

표 4. 문제 해결 주체 프레임 편향성

	조선일보	한겨레	계
일화적 프레임	52.8 (149)	46.5 (134)	49.6 (283)
주제적 프레임	47.2 (133)	53.5 (154)	50.4 (287)
계	49.5 (282)	50.5 (288)	100.0 (570)

$\chi^2=2,269, df=1, p=.132$

단위: % (n)

직, 사회나 정부 등 특정 대상에 과도하게 귀인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신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여 준다. <조선일보>는 문제 해결 주체를 유병언 일가, 청해진해운, 세모그룹과 같은 개인이나 조직에 귀인하는 일화적 프레임(52.8%)의 비중이 <한겨레>(46.5%)에 비해 높았다. 반대로 주제적 프레임에서는 <한겨레>(53.5%)가 <조선일보>(47.2%)에 비해 다소 높아 문제 해결 주체를 사회, 정부, 국가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으로 귀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표 4> 참조).

## 6. 결론 및 함의

### 1) 결론

이 연구는 국내언론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단, 평가, 책임 소재, 문제 해결 주체를 기술하면서 어떤 프레임을 비대칭적으로 더 강조해 보여 주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이러한 비대칭적 편향성이 이념적 가치가 서로 다른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어떤 차별성으로 나타나는지를 비교 연구했다. 내용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 진단에서는 전체적으로 <파편화>><개인화>><권위 무질서>><극화의 순으로 편향화되어 있었다. <조선일보>는 파편화 편향성이, <한겨레>는 권위 무질서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컸다. 둘째, 사고 평가에서는 책임 프레임>>도덕적 프레임>>문제 해결 프레임>>사고원인 프레임의 순으로 편향화되어 있었다. <조선일보>는 책임 프레임, 도덕적 프레임 편향적으로 사고를 평가했다. <한겨레>는 책임 프레임, 문제해결 프레임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셋째, 책임 소재에서는 정부>>개인>>조직의 순으로 편향화되어 있었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개인의 책임 편향성을 부각한 반면에,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더 강조하면서, 조직에 대한 책임 편향성도 함께 보였다. 넷째, 문제 해



결 주제에서는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 편향성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일화적 프레임임을 통해 개인이나 조직을, <한겨레>는 주제적 프레임임을 통해 사회, 정부, 그리고 국가를 문제 해결 주체자로 인식하는 편향성을 드러내 차이를 보였다.

## 2) 이론적 함의

이 연구는 프레임 개념과 편향성 개념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재난 사고 뉴스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해석했다. 국내 언론이 세월호 사고라는 특수한 재난 사고의 문제 정의, 원인 해석, 도덕적 평가, 그리고 사후 처방을 제시하면서 어떤 프레임을 편향적으로 구성해 보도했는지를 이론적으로 검정해 보았다. 뉴스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고를 규정할 때 사회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언어, 문장, 문맥을 현저하게 강조하는 프레임 전략을 구사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많은 뉴스 프레임 연구는 어떤 프레임이 많다, 적다 또는 시간에 따라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다는 식의 보도 규범적 측면에서 프레임 자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치중해 왔다. 이는 언론이 특정 사고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 주지만, 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제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구조적 지형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특히 기존 프레임 연구들은 프레임과 편향성 개념을 분리해 다룸으로써 사회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사회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언론이 어떤 사고를 진단하고 평가할 때 특정 프레임을 단독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프레임이 제시되는데, 이 과정에 소수의 특정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특정 프레임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비대칭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언론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라도 동일한 사안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편향되게 프레임을 구성하는 경우도 흔하다. 뉴스 프레임의 편향화는 사회문제의 본질을 올바르게 독해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달리 말하면 뉴스 프레임은 편향성 개념과 연결해 논의될 때 사회현상의 원인 정의, 원인 해석, 처방 제시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프레임 연구는 뉴스 속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프레임 자체를 도출하는 데서 나아가 언론이 사회적 사건이나 사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는지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 뉴스의 편향성 개념은 사회문제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해석틀을 제공한다. 어떤 사고의 사회적 성격은 결국 언론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프레임이 전체 맥락 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에 따라라도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적 재난 사고의 책임 주체를 사회나 국가보다 개인에게 묻는 프레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사람들은 사고의 책임을 사회나 정부가 아닌 개인에 더 귀인하게 된다. 재난 사고

는 다른 일반 사회이슈와는 달리 사고 원인의 진단, 사고 내용의 평가, 사고의 책임 소재, 그리고 해결 방법이 특히 중요하다. 재난 사고는 진단과 평가를 통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언론이 재난 사고를 보도하면서 특정 프레임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현저하게 하면, 결국 그 사고의 본질적 의미나 가치는 변형될 수밖에 없다. 재난 사고에 대한 성격 규정은 언론이 어떤 프레임을 중심으로 지각하고, 구성하고, 강조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언론이 재난 사고의 원인(진단), 평가, 책임, 해결 주체를 특정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프레이밍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정 프레임을 더 비중 있게 다룰 경우 사고의 처방과 해법은 달라진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냉정히 보면 청해진해운의 선장과 선원이었으며, 이차적으로 선주인 유병언 일가의 탐욕이 빚어낸 개인적 성격의 사고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구조 과정에 해양경찰이라는 조직의 무능한 구조 행태였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관점 못지않게 정부, 사회, 국민과 같은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문제로 귀인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이 같은 언론보도는 이 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인식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런 현실 인식이 사실의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거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연구결과만 놓고 보면, 국내 언론이 세월호 사고의 의미를 상호연관성을 통해 종합적이고, 맥락적으로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발생 관계에 대한 프레임을 비대칭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실의 전체적인 지형을 왜곡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사고의 원인, 배경, 과정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구조적 차원에서 제대로 진단되지 못함으로써 효과적인 예방책 제시가 어려웠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시련, 고통, 비극과 같은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초점을 맞춰 사고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개인화 편향성이 두드러진 것은 의외의 결과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고는 어린 학생을 포함해 다수의 사람이 어처구니없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인간적 흥미와는 거리가 있는 이슈였다. 하지만 국내 언론은 이런 사고의 비극성을 인간적 흥미성으로 치환하는 프레임 구성 체계를 드러냈다. 특히 언론의 이념적 특성에 따라 이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조선일보>가 <한겨레>에 비해 사고를 더 탈맥락적이고, 인간 흥미 중심의 극화 보도로 다뤘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관리, 장관,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에 책임을 강조하는 권위 무질서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동일한 사고를 두고 한 신문은 인간적 흥미라는 관점에서 사고를 연성화시킨 반면에, 다른 신문은 반대로 집단적 범죄 관점에서 경성화시켰다는 점에서 재난 사고조차 언론의 이념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앞서 설명한 대로 세월호 사고 발생의 원인은 선원이나 선박회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

다. 하지만 언론은 관리감독 소홀, 구조 과정의 부실한 대응을 들어 정부와 국가, 심지어 대통령에 책임을 돌리는 권위 무질서적 편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신문별로 보면 뚜렷한 차이가 난다. <조선일보>는 선원, 선장, 그리고 선주인 유병언 일가 등 개인에 책임을 강조한 반면에 <한겨레>는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조했다. 특히 <한겨레>는 <조선일보>와는 달리 선박회사, 해양경찰 등 조직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개인의 책임성을, <한겨레>는 조직, 정부 또는 국가에 책임을 강조하는식의 보도 편향성을 보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세월호 사고는 외형상으로는 원인과 책임의 주체가 분명하다. 하지만 언론이 이 사고를 사회, 정부, 국가 등 공동체적 문제로 지각함으로써 사고의 주체가 불명확해진다. 또한 문제 해결의 주체 프레임이 분산되고 모호해짐으로써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실종될 위험도 있다.

문제 해결 방식에서는 개인이 져야 한다는 일화적 프레임과 사회, 정부, 국가가 져야 한다는 주체적 프레임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언론이 세월호 사고의 문제 해결 주체를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편향화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언론이 문제 해결 주체자를 놓고 선원, 선장, 유병언 일가 등 개인 단위와 사회, 국민, 정부, 국가 등 집단적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된다. 물론 사고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일어난 것 일수도 있지만, 문제제기와 해결의 핵심 주체가 모호하고 비정합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문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조선일보>는 상대적으로 개인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일화적 프레임에 비중을 더 둔 데 반해, <한겨레>는 정부나 국가를 문제해결 주체로 삼는 주체적 프레임 편향성에 더 비중을 두었다. 이는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주체를 언론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조선일보>는 개인의 문제나 국민의 감정적 반응에 경도되어 보도한 반면에,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사고의 원인과 배경에 관심을 두는 편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매체 간의 이념적 차이에 따라 보도 프레임에 차이가 난다는 논의는 수없이 많이 있어 왔다. 하지만 재난 사고와 같은 정치적 이념성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이슈에서조차 프레임의 비대칭적 편향성이 나타난 점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세월호 사고가 지니는 사고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는 일반적인 자연재해와는 달리 사고 경위와 구조 과정에 여러 정치사회적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선주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선주와 정부 관료와의 유착,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과 구조 문제,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인에 따라 언론의 이념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전통적으

로 보수 신문은 체제 유지적인 보도 관행을, 진보 신문은 체제 변화적인 보도 관행을 지향하는 편으로 재난 사고에 대해서도 원인 제시, 책임 추궁,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연구에서도 보수 언론은 온건주의와 사회적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에, 진보 언론은 변화와 개방성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해 왔다. 이런 보도 관행의 차이는 보수 신문의 경우 세월호 사고를 개인의 문제로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윤리적 평가에 천착하는 반면에, 진보 신문은 집단과 체제에 대해 사고 원인과 해법을 요구하는 변화 촉구적 보도 태도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보수 신문은 세월호 사고를 보도하면서 사회적 구조와는 괴리된 개인적이고, 극화적인 프레임을 보다 강조하는 반면에 진보 신문은 조직, 정부, 정치지도자 등 권위 있는 사회적 집단에 책임과 해법을 요구하는 구조적 프레임 편향성을 보였다.

### 3) 보도 규범적 함의

언론은 세월호 사고를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흥미 위주의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했다고 평가된다. 첫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 속에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조명하기보다는 개인의 비극, 인간적 위기와 극복, 희생과 봉사 등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과도한 이벤트성 보도 경향을 보였다. 인명 구조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펜과 카메라를 유병언 일가의 추적 보도로 옮겨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단순히 선원들의 부도덕성과 한 해운회사의 탐욕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물론 승객들을 놔두고 도망간 선원들과 돈벌이에 눈이 먼 해운회사의 몰염치가 표면적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사회의 대충주의, 건성주의, 물질만능주의, 패거리주의, 부실감독, 민관유착, 정경유착 등 수없이 많은 구조적 문제가 얽히고설켜서 발생한 집단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 언론은 기관(조직), 사회, 국가와 같은 큰 맥락에서 구조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개선되어야 할 제도와 관행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둘째, 세월호 사건을 마치 드라마처럼 지나치게 극화하는 경향의 보도 태도를 보였다.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보다는 특정 배역(실종자 가족, 선장, 해경간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을 등장시켜 극적 장면과 갈등 관계로 뉴스를 꾸미는 드라마 방식의 보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과정에 자극적인 헤드라인, 사진, 그래픽, 비디오, 오디오를 동원해 사실을 극적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진실을 왜곡했을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문제와 원인을 드러내 보이기보다는 슬픔, 분노, 갈등, 대립과 같은 감정적 요소를 버무린 한 편의 비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는 식이었다.

셋째, 사건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기보다는 사안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파편화된 기존의 저널리즘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어떤 사건, 특히 재난 사고는 어느 한 가지 문제가 그 원인은 아니다. 반대로 그 사고의 이면에는 복잡한 원인과 배경이 존재한다. 언론이 사건을 스케치하거나 극적으로 표면화해 뉴스로 만들면 문제의 원인, 역사적 의미, 사안간의 관련성과 맥락, 그리고 인과관계는 묻혀 버린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특성상 여러 사안이 서로 얽히고설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언론은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어 내는 데 실패했다고 본다.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는 했지만, 정치사회적 배경과 원인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에 대해 치밀한 탐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구조과정을 심층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저명하거나 영향력 있는 인물의 행위와 반응을 서둘러 좇음으로써 사건의 전모를 구조적으로 밝혀내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집중하지 못했다.

넷째, 사건이나 사고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표적화하는 이른바 ‘권위 무질서’의 보도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한 점이다. 이번 세월호 실종자 구조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해경 간부, 관계부처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아 문제해결에 실패한 공직자로 낙인을 찍는 프레임 방식을 동원했다. 이로써 이들 정부 공직자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었고, 구조 작업보다 사건에 대한 해명과 갈등 수습에 더 치중하는 바람에 구조 작업이 오히려 지체되거나 혼란에 빠지는 문제를 낳았다. 언론의 이러한 권위 무질서화는 주로 정부 관계자의 책임론, 통제 상실, 무능, 정치적 갈등 등으로 비화되었고 정작 중요한 생명 구조의 문제와 과정에 대한 의제는 뒤로 밀려나고 말았다. 물론 해경 간부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언론이 장관이나 대통령을 실종자 가족 앞에 세우는 체벌 형식의 ‘권위 무질서’를 뉴스의 핵심 의제로 선택함으로써 사건의 본질, 예컨대 실종자 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분산되고, 이탈되는 결과를 낳은 것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과 구조, 그리고 수습 과정에 보여 준 신문 간의 관점과 시각의 차이는 사고의 진단과 평가, 그리고 해석과 대안 제시에서 서로 다른 프레임 구성 체계를 보여줬다. 이는 사고 이슈에조차 언론의 정파성이나 이념성이 은밀히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미국 저널리스트 출신이면서 미디어 비평가인 코바치와 로제스틸(Kovach & Rosenstiel, 2014)은 저널리즘의 첫째 의무는 진실추구이며, 어느 누구보다 시민에게 충실해야 하며, 검증의 규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널리즘의 많은 의무 사항 가운데 특별히 진실성과 정확성, 독자나 시청자 입장에서의 보도, 그리고 사실의 철저한 확인 작업을 저널리즘의

절대적 가치로 꼽았다. 물론 현장 접근이 어렵고, 시간을 다투는 재난 보도의 경우 규범에 맞춰 잘 보도하기는 어렵다. 이번 세월호 사고처럼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그것도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난 사고의 경우에는 취재기자들이 시간의 여유를 두고, 느긋하게 확인과 검증의 과정을 밟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이런 특수한 재난 사고라는 이유로 진실하고, 정확하고, 확인된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어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언론의 보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확인과 검증을 철저히 하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 지켜졌어야 했다.

#### 4)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는 건국 이후 최대의 사고참사로 기록된 세월호 사고에 대한 보도 프레임의 편향성 구조를 분석해 사고의 진단, 평가, 대안에 대한 전체적인 지형을 그려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 구성비를 통해 사고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해석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언론이 정치사회적 이념성에 따라 사회적 사고를 어떻게 편향적으로 보도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뉴스 프레임 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했다고 본다. 하지만 뉴스 정보, 사고 평가, 책임 소재, 문제 해결 등 몇 가지 제한적인 편향성 항목을 동원해 사고 뉴스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사고의 실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사고의 실제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고, 재현되었는지를 문맥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취재 과정에 겪은 심리적 외상을 입은 기자들이 세월호 사고 보도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보도 결과물이 어떤 양태로 나타났는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관호 (2014). 천안함 폭침 관련 남북한 주요 신문사설 논조 비교분석: 국내 보수, 진보성향 신문과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57권 1호, 81-114.
- 김사승 (2009). <뉴스생산 관행분석을 통한 정파성 뉴스생산 이해>(2020 미디어위원회 저널리즘실 행위위원회 2009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왕근 (2014). <세월호와 대한민국의 소통>. 서울: 미래를 소유한사람들.
- 김정아·채백 (2008). 언론의 정치 성향과 프레임: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 사건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1호, 232-267.
- 박재영·노성중 (2009). <한국 언론사들의 정파성 지형>(2020 미디어위원회 저널리즘 실행위원회 2009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진우·이형민·한동섭 (2014). 고리 원자력 발전소 블랙아웃 사고에 대한 매체별 보도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14권 2호, 31-74.
- 양정혜 (2008). 환경재난 뉴스의 프레임: 국내 주요 일간지의 '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 보도사례.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9호, 81-121.
- 오택섭·강현두·최정호·안재현 (2015).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서울: 나남.
- 이수진·윤순진 (2013). 4대 일간지의 전력 위기 보도양상과 프레임. <언론학연구>, 17권 4호, 175-208.
- 이완수·배재영 (2014, 10월). <뉴스에 대한 습관적 기록과 묘사: 세월호 사고 의견기사와 사진기사에 나타난 문화심리학적 편향성>.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언론과 사회분과. 서울: 고려대학교.
- 이준웅 (2009). 뉴스 틀 짓기 연구의 두 개의 뿔. <커뮤니케이션이론>, 5권 1호, 123-166.
- 임봉수·이완수·이민규 (2014). 뉴스와 광고의 은밀한 동거: 광고주에 대한 언론의 뉴스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66호, 133-157.
- 임양준 (2013). 한국 신문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프레임 비교 분석: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사설과 칼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2집 1호, 251-285.
- Bennett, W. L. (2007).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7th ed.). New York: Pearson.
- Bennett, W.L. (2012).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Pearson Education, Inc.
- Chyi, H. I., & McCombs, M. E. (2004). Media salience and the process of framing: Coverage of the Columbine school shoot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1), 22-35.
- de Vreese, C. H. (2002). *Framing Europe. Television news and European integration*. Amsterdam: Aksant Publishers.
- deVreese, C.H. (2012). New avenues for framing research.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6, 365-375.
- Deuze, M. (2005). What is journalism? Professional identity and ideology of journalists reconsidered. *Journalism*, 6(4), 442-464.

- Entman, R. (1993). Framing: Toward ch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Entman, R. (2007). Framing bias: Media in the distribution of power. *Journal of Communication*, 57, 163-173.
- Eveland, Jr., W. P., & Sha, D. V. (2003). The impact of individual and interpersonal factors on perceived news media bias. *Political Psychology*, 24(1), 101-117.
- Fico, F., & Soffin, S. (1995). Fairness and balance of selected newspaper coverage of controversial national, state, and local issue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s Quarterly*, 72(3), 621-633.
- Fowler, R. (2007). *Language in the news: Discourse and ideology in the press*. New York.: Routledge.
- Gans, H. (1979). *Deciding what's news*. New York: Patheon.
- Gans, H. (1980).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Vintage.
- Gentzkow, M., & Shapiro, J. (2006). Media bias and reputa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4(2), 280-316.
- Gentzkow, M., & Shapiro, J. (2013). Ideology in the news media. *NBER Reporter* 2, 14-16.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ovach, B., & Rosenstiel, T. (2014).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3rd ed.). 이재경(역) (2014).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Mayer, R. E. (2008). What conservative media? The unproven case for conservative media bias. *Critical Review: A Journal of Politics and Society*, 17, 315-338.
- Ploughman, P. (1995). The American print news media 'construction' of five natural disasters. *Disasters*, 19, 308-326.
- Schudson, M. (1978).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New York: Basic Books.
- Schudson, M. (2001). The objectivity norm in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m*, 2(2), 149-170.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New York: Longman.
- Streckfuss, R. (1990) Objectivity in journalism: A search and a reassessment. *Journalism Quarterly*, 67(4), 973-983.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Zelizer, B. (2004). "Defining Journalism." *Taking journalism seriously: News and the academy*. Sage Publications, Incorporated.

투고일자: 2015. 01. 30 게재확정일자: 2015. 05. 22 최종수정일자: 2015. 05. 27.



# Asymmetric Bias of the Ferry Sewol Accident News Frame

Discriminatory Aspects and Interpretive of Media

**Wan-Soo, Lee**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Media Communication, Dongseo University

**Jae-Young Bae**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and social significance of the disaster accident news with the frame and bias concept. In particular, this study confirmed theoretically how domestic media biased frame when it presents problem definition, causing interpretation, moral evaluation, and post-prescription on the ferry Sewol accident. In addition, the bias of the frame was analyzed comparing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ervative newspapers and liberal newspaper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diagnosis of ferry Sewol accident, news slanted fragmentation frame>personalization frame>authority-disorder frame. The Chosun Ilbo focus on fragmentation bias, meanwhile Hankyoreh focus on the authority disorder relatively. Second, in accident evaluation, responsibility frame>moral frame>problem-solution frame. The Chosun Ilbo focus on responsibility frame and moral frame. But Hankyoreh focus on responsibility frame and problem-solution frame. Third, in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government frame>personal frame>organizational frame. Chosun Ilbo biased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individuals, while the Hankyoreh is relatively more emphasis on government responsibility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organization also showed. Fourth, in problem solving, thematic frame and episodic frame bias appeared as rough and level. Chosun Ilbo showed episodic frame, Hankyoreh showed thematic frame. News frame and bias as well as ideological differences of media on ferry Sewol accident was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dimension.

**KEYWORDS** Ferry Sewol, Accident Diagnosis, Accident Evaluation, Problem Solution, Frame, Bias, Political Slant